



충남. 합덕성당의 가을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효주 (뜻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 제1독서 | 탈출기 22,20-26

### 화답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앙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가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제2독서 | 테살로니카 1서 1,5L-10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다.

###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22,34-40

성가 | 입당성가 [39]

예물준비 [512]

영성체 [496]

파견성가 [300]

## 미사 봉헌

### 연미사

전장근  
김은성 베드로  
김은성 베드로  
김학순  
김재윤 요셉  
이종란 크리스티나 기일  
이만재, 원광남  
고용복 베드로

### 봉헌

김영빈 루시아  
김데레사 가족  
익명  
박혜화 도미니카  
김태경 사도요한  
한안나, 데레사  
이영애 레지나  
고원혜 마리아

### 생미사

김선희 스킨라스티카, 김대원 영육건강  
이유리 결혼축하  
강해숙 바울라  
진은희 리베라타, 김성진요한  
김흥기 안드레아, 정재현 레오니아  
이병국, 이지훈아녜스, 이조앤 그레이스  
이지연 안나레지나  
윤명자 실비아의 건강과 쾌유  
백승민 안드레아  
김태경 사도요한, 김민선 로사  
김성중 다두 영명축일

### 봉헌

김영희  
윤루시아  
윤루시아  
김승범 프란치스코  
김승현 안나  
이지연 안나레지나  
이지훈 아녜스  
김윤수 미리암  
은총의 샘 꾸리아  
최은주 글라라  
요셉회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주일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흠/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셨습니다" 히브 13:2



**▶제 18회 사랑의 음악회 Love Concert ♪**

취지: **기외된 한인사회 복귀 지원**

일시 : 11.18(토), 7pm. 장소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성당  
 티켓 : 25불. 단체장 또는 미사 후, 친교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은 <음악회 프로그램>에 기도문과 함께 기재됩니다.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

묵주기도 10만단 바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오늘까지: 7,264 단

**▶성찬봉사자를 위한 전례 실무 교육**

일시: 11/5(일) 11시, 장소: 아래성당, Sr.효주

**▶예비신자 교리반**

세례: 2024년 3월 30일(부활성야)  
 교리 기간: 현재 ~2024년 3월 30일  
 요일 및 장소: 매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3A  
 신청: 사무실347.834.5784 \*아웃, 친구, 지인을 세례성사의 길로 초대해 주세요

**▶견진성사 교리반**

견진성사일: 2024년 3월 30일(부활성야)  
 첫만남: 11/5(주일) 11시 /요일: 매주일 오전 11시  
 대 상: 세례후 견진성사를 받지 않으신분(세례후 1년이상부터)  
 신 청: 사무실 347.834.5784

**▶유아세례 신청**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09:15) 유아세례가 있으니,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774조 2항

**▶성경공부 (BIBLE ACADEMY 2학기) 예언서**

주일반	매 주일, 12:40 3A	Sr.효주
목요일반	매주 목, 10시 3A	

**▶청년, 가톨릭교회 교리서 필독반 모집**

대상: 가톨릭 교회의 교리공부를 원하는 청년  
 일시: 월 1회 토 3pm. 신청: Fr.가롤로

**▶청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기도, 봉사, 따뜻함이 있는 꽃!

대상: 20대, 30대, 40대 남녀  
 활동: 매주 회합을 통한 기도 및 활동나눔, 봉사, 본당 협조등  
 \*희망의 모후Pr./ 매주목 6pm 문의: 단장 정다경 마리아 347-514-5783 \*우리즐거움의 원천Pr./ 매주일 11am 문의: 단장 이기원 스테파노 929-208-5147

**▶청년, 성서모임 가을학기 그룹원 모집**



대상: 가톨릭에서 세례받은 청년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신청마감: 10/29(주일) 장소: 다미아노  
 대표봉사자: 김진섭 야고보 201-912-7577

가을... 하느님 길이 뽁!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후보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시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더큰집**  
 TEL. 212-564-8238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Tel: 347-840-2112  
 (32 St.- 33 St.) Fax: 212-631-8070  
 New York, NY 10001 hanbittour@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WONJO**  
 New Wonjo  
 212-695-5815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10/29	배수아 마들렌소피바라	김규현 프란치스코	류유리 마테아	류유리 마테아	김종선 비비안나	한서희데레사 최예준사모요한
11/5	백이백 아오스딩	민완준 필립보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유정욱 유스티나	한서희데레사 김수현실비아

## 주일의 말씀

## 가장 작은 계명

| 김성래 하상바로 신부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고 싶고,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살고 싶다.”

영화평론가 이동진의 말입니다.

사실 인생은 모두 하루입니다. 만일 자신의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하며, 그 외의 것은 하느님께 맡기면 됩니다.  
‘기필’을 버리라고 합니다.

인생은 기필코 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큰 계명에 집착하는 율법 교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장 큰 것은 대개 눈에 띄는 추상적인 것입니다.  
큰 것은 모든 것을 다 담아낼 것 같지만 실상은 기초가 없는 허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것을 바라보다가 작은 것,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가장 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이웃에게 다정하게 인사하고,  
배우자에게 귀 기울이고, 자녀를 칭찬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등입니다.

작은 것 없이 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기자가  
“세계 평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는 분명 크고 멋진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말합니다. “집에 가서 가족을 사랑해 주세요.